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전면철거 약속 지켰다

입주예정자들 요구 전면 수용 1~3층 주상복합상가도 철거 범위 늘어 철거 기간도 늘 듯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를 '부분 철거'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것(7월 14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 입주예정자들과 논의 끝에 당초 계획대로 지상층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상복합 상가인 1~3층과 일부 근린생활 공간을 남긴 채 철거하기로 한 것을 다시 지상층 전체 철거로 되돌린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에서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화정아이파크 철거 범위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장에서는 해체 공사를 총괄하는 호명기 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장이 참석해 상가·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8개 동의 해체 범위를 '전면 철거'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철거안을 내놓음에 따라 문서를 통해 이를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문서화에 동의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철거범위를 두고 사전 자체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0여명이 지상층 전체 철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해체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8개 동 전체의 해체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전면 해체'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주상복합 상가인 1~3층과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남긴 채 철거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18일 입주예정자를 모아 '수분양자 보상 종합대책안' 설명회를 열었을 때 "주거층을 철거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입주자들 또한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회에서 철거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대산



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부분철거'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공사와 관련해 입주예정자 의견을 받아들여 1~3층 상가를 포함한 지상층을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업개발 측이 핑수를 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2주에 걸쳐 철거 범위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면 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철거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기간도 다소 연장될 전망이다. 철거공법상 2~3일이면 충분히 한 층을 철거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2주에 걸쳐 한 층을 철거하도록 공사기간을 여유롭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승업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당초 자신들이 한 전면 철거 약속에 대해 핑수를 부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서구청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모든 정보를 입주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철거범위 문제도 결국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유연재 기자 yjiyou@

광주시, 무량판 아파트 주차장 2곳 발견 정밀검사

1차 전수 조사에서 철근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발견하지 못했던 광주시(광주일보 8월 1일자 1면)가 2차 추가 조사를 통해 아파트 2곳이 주차장 시설에 무량판을 채택한 것을 확인, 정밀안전점검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량판 공법이 적극 채택된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 14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한 결과, 무량판

을 채택한 아파트 2곳을 발견했다. 아파트 2곳 모두 무량판 공법을 채택한 곳은 주차장 시설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 2곳에는 현재 총 5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차로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했으나, 무량판 채택 아파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로 2013-

2016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도 무량판 채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는 또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일명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량판 채택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무량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거주 시민들이 불안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구독료 월 1만5000원으로 올립니다

광주일보는 8월 1일부터 한달 구독료를 1만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신문 1부의 판매가격은 현재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2008년 이후 15년동안 구독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만 용지값 등 각종 제작비용의 상승으로 부득이 구독료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광주일보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 최고 품질의 정보를 담은 광주·전남지역 대표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광주·전남 최고의 배달망을 자랑하는 광주일보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애독자님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光州日報社

전남도, 9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 선정

여주시·무안군 최우수상, 나주시·광양시·장성군 우수상

전남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9년 연속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2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상·사업분야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종합평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 지난 2015년 이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주시·무안군은 최우수상을, 나주시·광양시·장성군은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 추진 등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선제 대응과, 일자리플랫폼 개소 등 도민이 공감하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강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 분야에서는 그린·디지털 뉴딜 인력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인력 양성교육과 취업을 적극 지원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 간 일자리 정책을 종합 분석해 일자리 40만 개 창출 목표를 달성, 일자리 행복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반려동물과 함께 전시회 감상하세요"

광주시립미술관, 23~29일 특별 관람 주간 운영

광주시는 "세계 개의 날(International Dog Day·8월 26일)을 기념해 '광주시립미술관 반려동물 동반 특별 관람 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 관람 주간은 오는 23~29일이며, 광주시립미술관 1층 제1·2전시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생태 미술 프로젝트'를 관람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람객은 한명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개별 이동장이나 개 유모차를 지참해야 한다. 미술관 입·출구 로비에서도 무료로 개 유모차를 대여하고 배변 패드를 제공한다.

시립미술관은 반려동물과 전시 관람을 완료한 스태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반려동

물 간식을 제공하는 스태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 동물 입양캠페인 사진전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특별 관람주간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5월 22일 열린 제28회 월요 대화에서 동물복지 전문가들에게 제안받아 추진됐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반려동물 100만 시대인데도, 반려동물을 동반해 미술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려동물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양양면 수문해수욕장 (올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림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점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 공고)

주식회사 제이엠엔지니어링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보성전력 (이하 "을")은 2023년 08월 01일 개회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게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3년 8월 3일

"갑" 주식회사 제이엠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북구 청안로 45, 비동 1205호(연계동, 청안리제비타워)
대표이사 전찬길

"을" 주식회사 보성전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길 145-6
대표이사 손영식

사찰(금)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정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